

2016년 6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6.6.24(금) 14:00~15:00

■ 주요 회의 내용

▲ 보도의 심층성, 전문성 제고해야

- 영국 여성의원 피살 뉴스의 영향력이 큰 만큼 비중 있게 다뤄야함. 블랙 시트에 반대한 영국 노동당 의원 피살 뉴스는 국제 및 국내 금융계 특히 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했을 때 비중 있게 다뤄야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17일 저녁 7시, 8시 뉴스에서는 관련 내용이 전혀 소개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김상선 위원)
- 18일 '음란채팅 미끼 몸캠피싱...월 평균 130건 발생' 내용에서 '몸캠피싱' 이라는 생소한 범죄행위로 피해사례가 많다는 보도는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는 좋은 보도이지만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와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 방안을 함께 소개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박동민 위원)
- 15일 '라이브 투데이' 청년실업뉴스 관련 취업자 두 달째 20만명대 ↑ --- 청년실업률, 5월 기준 역대 최고 보도는 다른 매체들에서도 남녀 구분 통계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음. 물론 통계자체가 제공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남녀분리 통계가 제시되었더라면(아마도 여성의 실업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에 대한 대책도 달리 제시될 수 있지 않았나 함(정현주 위원)
- 22일 '뉴스워치' 맞춤형 보육 반발 어린이집 휴원 --- 엄마들 '발동동' 내용에서 맞춤형보육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설이 부족했음. 지금까지 어린이집 이용에서 오히려 직장맘들이 뒷전이었던 점, 이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심화 등 멀리는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 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필요성과 출발이 가구의 대상 자녀수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추는 등의 대책도 상세한 보도가 필요함(정현주 위원)
- 9일 '출발640' 수락산 이어 사패산까지 여성단독 산행 '주의보' 내용에서 여성혼자 산행에 나서는 경우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음. 전문가들은 등산로는 CCTV가 설치돼있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곳이 많으므로 여성 등 노약자는 가급적 낮에 동료들과 함께 인적이 많은 길로 산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 마무리 했는데 범죄의 대상이 되어 여성들이 산행을 포기하게 되는 여성의 산행권(?)침해에 대한 대책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해 주었으면 하며. 이점에 대한 다른 전문가의 코멘트를 받을 것을 건의함(정현주 위원)
- 노인 학대 관련 내용은 전문적으로 다뤄져야 할 분야임. 경제부 기자가 잘 설명

했지만 사례자나 전문가 인터뷰가 있다거나 통계의 도표 수치등도 함께 나와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박정숙 위원)

▲ 화면구성, 자막, 표현 개선필요

- 21일에 여성 로마시장 당선과 관련해 현지 특파원 리포트를 보았는데, 마지막 스탠딩이 방송사고 수준으로 여겨졌음. 연합뉴스TV에서는 특히 특파원들의 영상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연합뉴스TV가 이제 보도채널 1위로 등극한만큼 아마추어리즘적인 요소는 최대한 배제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주철환 위원)
- 어린이집들의 보육대란관련 내용에서 기사와 영상이 일치성이 떨어졌음. 당일 뉴스는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효과가 좋음(이재경 위원)
- 화면 우측하단 맨 끝의 환율과 주가 자막화면을 더 오른쪽으로 붙여 뉴스자막이 더 보이게 했으면 좋겠음(박동민 위원)
- 제목 등에서 띄어쓰기 등에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눈에 띄. 제목의 맞춤법이 틀릴 경우 눈에 확 들어오면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음(주철환 위원)
- 자막 표기에 신경을 더 써야할 듯함. 매일 아침 11:00시경 진행되는 '뉴스 포커스'에 "이종구, 이해훈, 강성 친박으로 찍혀, 친박, 기재위원장 조경태 몰표"라는 자막이 뜬 → "이종구, 이해훈, 강성 비박으로 찍혀"라는 표현이 맞음(신현택 부위원장)

▲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 기획의견

- '여행과 풍경' 다큐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적지를 볼 수 있어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고, 연합뉴스TV의 품격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함. 그러나 방영시간이 토요일 오후와 월요일 새벽이어서 시청기회를 잡기 매우 어려움. 방영요일을 시청률이 높은 날로 변경하는 걸 검토했으면 함. 또한 영상을 짧게 편집하여 광고시간대에 자주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듯함(박동민 위원)
- '라이브 투데이'에서 뉴스를 섹션별로 나눠서 진행하지 않는 것 같음. 뉴스 경중에 따라 또는 섹션별로 구분하는 것인지 뉴스배열 방식이 궁금함. 아침시간에는 종류별로 가장 중요한 순으로 속보가 나온 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순으로 구분한다면 시청시 순서가 예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함(박정숙 위원)
- '라이브 투데이 2부' 기자가 출연해 통계나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따끈따끈한 소식이라 좋았지만 한편으로 급하게 소식을 전하다 보니 다른 화면을 통계자료로 전달할 때 정리가 덜 된 느낌이었음(박정숙 위원)
- 4일 '뉴스13' 프로그램 도중 계속된 무하마드 알리 사망 뉴스특보를 보면서, 이 소식이 왜 속보(특보)로 전해야 하는지 잠깐 동안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있음. 뉴스특보 대상뉴스를 선정할 때 보다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함(김상선 위원)

- 국제뉴스 비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영국 BBC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연합뉴스TV 만의 차별화 전략의 하나로서, 주요 뉴스 시간마다 일정비율 만큼 국제뉴스를 편성. 방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좋을 듯함(김상선 위원)

▲ 진행자, 출연자 및 긍정적 의견

- 경륜 있는 진행자가 뉴스를 진행하면 시청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정인이 아닌 언론인 출신 중 경륜과 외모, 언변 등을 갖춘 경륜 있는 진행자 물색 후 투입검토 필요(신현택 부위원장)
- 출연진이 너무 고정적임. 이는 다른 방송사의 사정도 비슷하지만 출연자들이 늘 비슷한 사람임. 새로운 인력풀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주철환 위원)
- 아침방송 '라이브 투데이' AM PM 코너에서 정부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내용을 다룸. 다른 곳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연합뉴스TV에서 정부의 소식을 전달해 주어 국민들에게 매우 좋은 코너라는 생각함(박정숙 위원)
- 논산시 관련 내용에서 논산시장이 논산지역 학생들을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었는데 논산은 작은 도시여서 뉴스에 나올 가능성이 적은 지자체이므로 굉장히 괜찮은 느낌이었음. 중앙매체에서 다루지지 않는 이런 작은 도시의 좋은 소식을 적극적으로 다루준다면 좋을 것(이재경 위원)
- . (끝)